

##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,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!

- 최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데 기여해 온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데일 골딘(Claudia Dale Goldin)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.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실제 어떠한지를 OECD국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.
-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%로 OECD 평균인 12%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,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. 임금 격차가 31%라는 것은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버는 동안 여성 근로자는 69만 원을 버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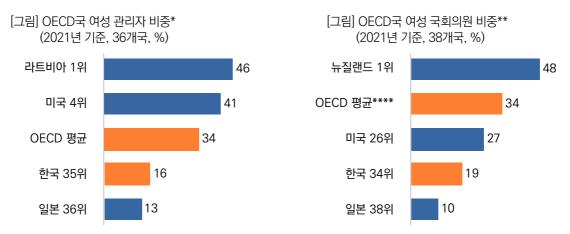
[그림] 남녀 간 임금 격차 (OECD국 비교, 2022년 또는 가장 최신 조사일 기준, %)



\*자료 출처: OECD, gender wage gap 데이터 참조, 2023.10. (https://data.oecd.org/earnwage/gender-wage-gap.htm)
\*\*OECD 평균은 2021년 기준임(각 나라별 조사 기준일이 상이함)

## ◎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중, OECD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!

-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현황, 사회적 지위 정도를 파악하고자 여성 관리자 비중\*\*\*과 여성 국회의원 비중을 각각 OECD국과 비교해 보았다. 우리나라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21년 기준 16%로 조사에 응한 OECD 36 개국 가운데 35위로 조사됐다. 일본(36위)을 빼면 최하위인 셈이다.
- 여성 국회의원 비중 역시 OECD 평균이 34%인데 반해 한국은 19%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고, OECD 38 개국 중 한국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콜롬비아, 튀르키예, 헝가리,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했다.



\*자료 출처 : 연합뉴스, 한국 여성 관리자 비중 16.3%···OECD서 일본 빼면 최하위, 2023.03.08. (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307157900003)

<sup>\*\*</sup>자료 출처: OECD, gender wage gap 데이터 참조, 2023.10. (https://data.oecd.org/earnwage/gender-wage-gap.htm)

<sup>\*\*\*</sup>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, 고위 공무원, 국회의원, 대학 총장,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임

<sup>\*\*\*\*</sup>OECD 평균은 2023년 기준임(각 나라별 조사 기준일이 상이함)

## ◎ 각 교단별 여성 총대(총회회원) 비율, 6개 교단 평균 12%!

- 한국교회의 여성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'여성 총회 총대(총회회원) 비율'을 각 교단별로 살펴보았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(예장통합)의 경우 2019년 2%, 2023년 3%로 여전히 한 자리 수에 그쳤고, 한국기독교장로회(기장)와 기독교대한감리회(기감)는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10%대를 유지했다. 여성 총대 비율이 가장 높은 교단은 '대한성공회'로 총회회원(성공회에서는 의회 대의원으로 불림) 4명 중 1명(26%)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6개 교단 평균은 2019년 11%, 2023년 12%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## [표] 한국교회 주요 교단 여성 총대 비율

교단	2019*	2023**
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	2%	3%
한국기독교장로회	10%	11%
기독교대한감리회	11%	15%
대한성공회	18%	26%
기독교대한복음교회	15%	11%
기독교한국루터회	7%	7%
6개 교단 평균***	11%	12%

<sup>\*</sup>자료 출처 : 한국교회여성연합회

<sup>\*\*</sup>자료 출처 : 각 교단별 직접 전화 통화하여 확인함

<sup>\*\*\*</sup>각 교단의 총대, 여성총대 수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낸 평균임